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 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12. 23.(수) 총 1매(본문1)	
국토 교통부	주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장우철, 사무관 이중곤 • ☎ (044) 201-3325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향후 2년간 수도권에는 연평균 18.6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한국경제 등 12.22) >

- ◆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올해보다 2만 가구 줄어... 분양도 '절벽'
- 민간 업체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.9만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

- 향후 2년('21~'22) 간 수도권 및 서울에는 예년('10~'19) 평균 대비 각각 年 4.3만호, 0.5만호가 많은 年 18.6만호, 3.9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.

* 아파트 공급실적('10~'19): 수도권 年 14.3만호, 서울 年 3.4만호

- 기사에서 인용된 민간 기관은 “입주자 모집공고”만을 기준으로 아파트 준공물량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
 - 이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는 공공임대 물량 등이 제외됨에 따라 전망치가 과소 집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 - 참고로 정부는 공급 전망 예측 시, 분양 공고 물량 외에도 후분양 및 임대 물량, 기 착공 미분양 물량 등을 포함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향후에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5.6, 8·4, 전세 대책 등을 적극 이행하여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중곤 사무관(☎ 044-201-3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